

#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교육 활동\*

최혜주\*\*

## 〈차 례〉

1. 머리말
2. 학정참여관 활동과 동화주의 교육론
3. 대북제대(臺北帝大) 창설 활동과 식민교육론
4. 맺음말

## [국문초록]

시데하라가 조선과 대만에서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교육 활동을 살펴보았다. 첫째, 시데하라는 조선과 대만의 교육을 서구 식민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찰한 뒤 조선과 대만이 서구보다도 식민지 교육이 순조롭게 되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것은 조선과 대만이 일본과 '같은 인종'이므로 인종, 사상, 풍속, 습관에서 차이가 없고 일본인이 식민지 주민들을 다루는 교육법도 무리하지 않아 동화교육의 효과가 있어 서구보다도 유리하다고 보았다.

둘째, 실제 교육에서는 조선과 대만 모두 일본인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여 식민지 주민 교육보다 우선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데하라는 조선에서 학정참여관으로 있을 때 근대적 교육의 학제 개편을 실시하면서 대학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시했다. 대만에서는 대학설립을 준비하여 총장이 된 후 대만인보다는 일본인 위주로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식민지대학을 운영해 나갔다. 이것은 시데하라가 조선과 대만에서 중주국의 지위를 얻은 일본인에게 지도자다운 자질을 요구하면서, 조선인과 대만인에게는 피식민자의 지위에만 머물게 하려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 시데하라는 조선과 대만에서 문화 건설과 교육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실천자가 되어 활동했다. 조선에서는 일본어 보급과 교과서 편찬을 통해 일본문화를 침투시키고 있었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2648).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대만에서는 대만이 일본문화 선전에 필요한 남양연구와 조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문·자연과학 연구에서 막대한 가치를 갖는 지역이라는 인식아래 일본문화의 정수를 남방에 건설한다는 사명에서 활동했다.

넷째, 시데하라의 적지주의라는 것은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 사정을 참작하여 식민통치에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조선과 대만의 식민통치에서 일제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는 대북제대의 설립을 경성제대의 설립과 비교한다면 적지주의적 교육정책의 모습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주제어] 시데하라 타이라, 학정참여관, 동화교육, 조선, 타이완, 식민교육, 문화 건설, 대북제국대학

## 1. 머리말

시데하라 타이라(1870-1953)는 도쿄고등사범학교(東京教育大) 교수로 있으면서 1900년 한국에 파견되어 관립중학교 교사와 한국정부 학부의 학정참여관(1905)으로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다. 1906년 일본으로 귀국하여 문부성 시학관으로 동화교육을 위한 이론가로 활동하면서 1910년에는 도쿄제대 교수를 겸임했다. 이후 그는 네 차례(1910, 1914, 1917, 1924년)에 걸쳐 구미 각국의 식민지 교육 상황을 조사하면서 조선만이 아니라 대만, 남양군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25년부터 이자와 다키오(伊沢多喜男) 대만총독에게 국립대학 창설 임무를 받고 개교를 준비한 뒤 대북제대(臺北帝大) 총장(1928)이 되었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만총독부평의회 회원, 교과서조사회 위원, 중앙연구소 평의회원, 국립공원조사회 위원, 산업조사회 임시위원, 대만 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을 지냈다. 1936년에는 의학부를 창설하고 다음해 총장을 사임한 뒤 1년 간 명예교수로 있다가 1938년에 대만을 떠났다.

이 논문은 시데하라가 조선과 대만에서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두 나라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데하라에 관한 연구는 학부고문(顧問) 활동 및 조선사 연구와 식민지 조선‘경영’, 병합전후의 활동과 교육론에 대한 논고가 있다.<sup>1)</sup> 일본

1) 최혜주, 『幣原坦의 顧問活動과 韓國史研究』, 『國史館論叢』 79, 1998; 『幣原坦의 植民地 朝鮮經營에 대한 研究』, 『歷史學報』 160, 1998; 『韓國併合前後における幣原坦の行跡と教育論』, 『朝鮮學報』 247,

에서도 고용교사, 학무관료로서의 시데하라의 교육정책, 일본어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축적이 있다.<sup>2)</sup> 그리고 대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李恒全과 우마코시 도루(馬越徹)의 대북제대 설립 구상과 관련한 연구, 다키이 가즈히로(瀧井一博)의 식민지 교육 시찰과 대학관을 살펴본 연구<sup>3)</sup>가 있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는 조선과 대만에서의 활동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데하라가 조선과 대만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인에게는 통치자로서의 자세를 갖게 하고 식민지 주민에게는 ‘적지주의’ 방식으로 일본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동화주의(同化主義) 교육을 시도한 점을 주목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시데하라의 조선과 대만에서의 교육 활동은 문화와 교육의 발전이란 명목으로 진행된 그의 동화주의 이론가로서의 활동과 국가주의적인 대응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2장에서 한국에서 학정참여관이 되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데하라가 근대교육이 처음 실시된 한국에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 어떠한 교육을 시행하려 했는지, 일본어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그는 서구 식민지 교육의 장단점을 참고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인도, 구미(歐美), 만주, 조선을 방문하고 그 성과로 『殖民地教育』(1912), 『世界小觀』(1912), 『滿洲觀』(1916), 『朝鮮教育論』(1919)을 간행했다. 여기서 서구 식민지 교육과 비교하여 조선의 동화주의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검토한다.

다음 3장에서는 시데하라가 조선에서의 교육 경험을 반영하여 1924년 6월 9일 구미에 2차로 파견되어 조사를 마친 뒤 대만대학의 창설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2018(이 논문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2018, 40-92면에 번역 수록); 李星烈, 「乙巳勒約 前後 日本人 學政參與官 幣原坦의 教育干涉」, 『教育行政學研究』 20-4, 2002.

2) 小澤有作, 「幣原坦論序說 — 殖民地教育指導者の足跡と思想」, 『海峽』 1, 1974; 稻葉繼雄, 「舊韓國における 教育の近代化とお雇い日本人」, 『日中教育文化交流と摩擦』 阿部洋編, 1983; 馬越徹, 「漢城時代の幣原坦 — 日本人お雇い教師の先駆け」, 『國立教育研究所紀要』 115(國立教育研究所, 1988); 馬越徹, 「廣島高等時代の幣原坦 — 『學校教育』にみる殖民地教育觀を中心に」(『戰前日本の殖民地教育政策に関する綜合的研究』, 科研費報告書・綜合 A, 研究代表者阿部洋, 1994); 金泰勳, 「20世紀初頭における日本の對韓教育政策: 韓國民衆の教育救國運動との關わりを中心に」(日本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教育學專攻博士論文, 1993); 佐藤由美, 「殖民地教育政策の研究」(龍溪書舍, 2000); 李笑利, 「幣原坦の日本語教育政策と『日語讀本』」, 『久留米大學大學院比較文化研究論集』 12, 2002.

3) 李恒全, 「台北帝國大學設立計劃案に関する一考察」, 『神戸大學大學院人間發達環境學研究科研究紀要』 1-1, 2007; 馬越徹, 「台北時代の幣原坦 — 台北帝國大學の創設と展開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 — その形成と展開 —』, 科研費報告書・綜合 A, 研究代表者 阿部洋, 1996); 陳瑜, 「台北帝國大學設立構想に関する研究」, 『教育實踐學論集』 8, 2007.3; 瀧井一博, 「殖民地帝國大學のエートス: 台北帝國大學初代總長幣原坦の思想形成」(酒井哲哉・松田利彦編, 『帝國日本と殖民地大學』, ゆまに書房, 2014).

중점을 두었는지, 그의 교육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世界の變遷を見る』(1926), 『臺灣教育』, 『臺灣公論』, 『實業之臺灣』, 『臺灣警察時報』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가 대만문화를 연구하여 『南方文化の建設へ』(1938), 『國史上南洋發展の一面』(1941), 『極東文化の交流』(1949)를 간행한 점에 주목하여 대만교육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2. 학정참여관 활동과 동화주의 교육론

### 1) 학정참여관 활동과 조선교육 인식

시데하라는 도쿄제국대학 국사과에 재학하던 학창시절부터 ‘일본문화의 건설’이란 차원에서 류큐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문화가 남방으로 전파되어 류큐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류큐의 문자·언어·풍속이 일본 본토와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sup>4)</sup> 1893년 대학을 졸업하고 8월에는 가고시마(鹿兒島)고등중학교 조시칸(造士館 : 현 鹿兒島大學)의 교수가 되어 사쓰마, 류큐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류큐를 방문하여 일본문화가 류큐에 준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후술하듯이 이러한 관심은 1910년 이후 남양문화 연구로 이어지고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하의 남양행 중견인물 양성 교육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는 1896년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현 お茶の水女子大學)에서 1년 간 역사를 가르치고 야마나시 중학교 교장을 거쳐, 1900년에 도쿄고등사범학교(東京教育大 : 현 筑波大學) 교수가 되었다. 이 해 10월 문부성의 지명을 받고 11월 6일 도쿄고등사범 교수 겸직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시데하라가 파견을 수락한 것은 “자신의 고향 오사카가 천 년 전에 백제로부터 전수받은 문화적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sup>5)</sup>라고 여겼기 때문이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개인적 동기도 존재했다.

시데하라는 한국의 관립 한성중학교(현 경기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사로 부임하기 위해 갔지만 한국정부는 그가 다양한 ‘신학문’을 강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4) 幣原坦, 『文化の建設』 제1화 「日本文化の影響の認識」, 吉川弘文館, 1952, 1-3면.

5) 幣原坦, 『文化の建設』 제3화 「文勳への返報」, 吉川弘文館, 1952, 24면.

러나 그의 한국 파견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일본정부의 큰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데하라가 한국에 가기 전 일본의 한국 교육에 대한 개입 움직임은 이미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위해 한국정부에 내정개혁을 제시하는 가운데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sup>6)</sup> 이 개혁안은 한국정부가 거절했지만 일본정부는 장차 한국을 청국의 속박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신의 보호국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여러 개혁을 착수하면서 특히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마음을 개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sup>7)</sup>

일본정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한국의 교육정책을 담당할 일본인 고문과 일본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일본의 세력부식을 노리기 위한 목적에 서였다. 실제로 러일전쟁이 만주로 확대되면서 전쟁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해지자 한국에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했고, 한국정부 내에 일본인 고문을 둘 것을 요구했다. 1905년 1월 16일자로 하야시(林權助) 공사가 고무라(小村壽太郎)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문에는 교사가운데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sup>8)</sup> 이에 따라 1905년 2월 시데하라가 한성중학교 교사에서 학정참여관에 임명되어 한국 교육에 관한 노골적인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정참여관 시데하라는 먼저 다음의 한국 교육에 관한 교육 방침을 정했다.<sup>9)</sup> ① 한일의정서의 취지에 근거하여 한국이 만반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할 것, ② 한국민의 행복을 위해 선량하고 평화적인 국민성을 함양시킬 것, ③ 일본의 문화를 수입하고, 한국을 개발시키기 위해 점차 일본어를 보급시킬 것, ④ 종래 한국의 국교인 유교를 파괴하지 않고 그 위에 신지식을 일반에게 개발시킬 것, ⑤ 학제는 번잡한 것을 피하고 과정은 간이하게 할 것. 그가 이 교육 방침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한일의정서를 준수하여 일본문화를 수입하고 문화개발을 위해 일본어를 보급시키는 문제였다. 그리고 소학교 개혁, 감독할 시학기관 창설, 교과서 편찬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6) 「朝鮮教育制度改造の方法を講究すべし」, 『教育時論』 335, 〈社説〉, 1894.8.5., 5-8면.

7) 최혜주, 「韓國併合前後における幣原坦の行跡と教育論」, 『朝鮮學報』 247, 2018.

8) 『日本外務省記録』, 「韓國=於テ學部顧問聘用並ニキ學政改革ノ件」, 1905.2.24.

9) 幣原坦, 『文化の建設』 제4화 「朝鮮に於ける學制の創定」, 1952, 28-30면; 幣原坦, 『朝鮮史話』 제20화 「朝鮮保護誌」, 16, 學政の整理(富山房, 1924), 464-465면.

소학교 개혁을 보면 1895년 당시 소학교는 4교가 개교하여 약 187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1902년에는 관립심상소학교 9교, 공립은 25교, 고등소학교 1교가 있었는데,<sup>10)</sup> 1905년에 이 9개의 소학교를 개혁하여 일본 소학교의 수준과 비슷하게 했다. 그리고 이수과목 가운데 일본어 1과목을 더하여 교과서를 편찬했다. 학부에서는 1905년 11월 17일 현재 학부 본청에 근무하는 일본인 4명 가운데 통역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교과서 편찬에 관계했다. 학부에는 시데하라, 우에무라(上邨正巳, 통역관), 와다제(渡瀬常吉), 다카하시(高橋亨)가 근무하고 나머지는 교과서 편집 촉탁이었다.<sup>11)</sup> 시데하라가 퇴임한 뒤를 이어 학정참여관이 된 미쓰지(三土忠造) 재임시에는 사무관 다나카(田中玄黃), 마쓰미야(松宮春一郎), 우에무라(上邨正巳), 고스기(小杉彦治) 및 서기 2명, 기수 1명 등 8명이 일어독본,<sup>12)</sup> 지리, 역사, 산술, 이과, 수신 등의 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한편 일본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에서 한국의 시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문을 파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때부터 있어 왔다. 즉 한국 교육 경영을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일본어의 보급이며, 소학교에서 필수교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어 보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그동안 두 나라가 서로의 사정을 몰라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我國이 한국과 접촉하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역사였다. 그 결과 저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악감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이 피아의 사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은 암거를 만들고, 점점 阻隔을 가져온다. 이번 소학교교과에 일본어 1과를 더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고 따라서 和衷의 실적이 오르게 될 것이다.<sup>13)</sup>

그러나 두 나라가 서로 마음을 합쳐 동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교과서의 증설이 시

10) 『韓國の教育に就きて』, 『教育界』 1-3, 〈論說〉, 1902.1.3., 105-109면.

11) 大垣丈夫, 7. 『韓國의 新學政』, 『대한자강회월보』 2호, 1906. 그러나 미쓰지는 衆院에 출마하기 위해 불과 1년 10개월로 사직하자,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맡게 되었다. (최혜주,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7, 2010)

12) 李笑利, 『幣原坦의 日本語教育政策と『日語読本』』, 『久留米大学大学院比較文化研究論集』 12, 2002.

13) 『韓國教育と日本語』, 『教育研究』 17, 〈雜報〉, 1905.8.1, 301면.

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본어가 “한국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또 일본 세력을 부식시키는 지대한 요건”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sup>14)</sup> 이때 소학교에서는 일본어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었다.

일러전쟁 때까지는 학문이라면 한문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1905년에 한문 복습의 일부를 할애하여 일본어 학습에 충당하게 되었는데, 소학교의 교사까지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백 명의 생도가 학부이문에 몰려들어 미리 대여한 교과서를 던지고 이를 선동하는 群集도 다하여 소동이 일어났다. 또 초빙된 일본인 교사에 대해서도 고등소학교의 아동이 쳐들어와서 말하기를 “한국의 급일이 있는 것은 겨우 한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러한 소학 정도의 학교에서 이미 한학 시간을 줄이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국 소년의 뱃살을 들어내고 타국의 종자를 심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성가신 일이 일어났다.<sup>15)</sup>

시데하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인의 오해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았으며, “(한국인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를 일본어로 바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우리들을 일본에 보내 군인으로 만들고 또는 노동자로 삼을 예정이라고 상상을 드러내어 인심을 동요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6)</sup>

그리고 시데하라는 앞에서 살펴본 교육 방침을 토대로 1905년 4월 11일에 〈한국 교육개량안〉을 정했는데, 구체적 방법을 제1기부터 제3기로 분류했다. 제1기에서는 ① 보통학교 창립, ② 입학 장려, ③ 시학기관 설치, ④ 교과서 편찬, ⑤ 사범학교 개량, ⑥ 외국어학교 통일, ⑦ 중학교 개혁, ⑧ 농상공학교 정돈, ⑨ 사립일어학당을 처분한다. 제2기에서는 ① 여학교 창립, ② 농상공학교 분리, ③ 고등학교(종래의 중학교를 개칭한 것) 및 여러 종류의 전문학교(사범학교를 포함) 증설, ④ 서서히 성균관 개선 등을 행한다. 제3기에서는 ① 고등전문학교 창립, ② 보통학교 보습과 설치 등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이다.<sup>17)</sup> 그는 교육의 수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과

14) 『韓國の教育如何』, 『教育時論』 686, 〈社説〉, 1904.5.5, 83-84면.

15) 幣原坦, 『朝鮮教育論』 제1장 總說 4. 改革着手の際の騷擾, 1919, 38-39면.

16) 같은 책, 43-44면.

17) 幣原坦, 『朝鮮史話』 제20화 『朝鮮保護誌』, 16. 學政の整理, 1924, 465면.

초등교육 가운데 초등교육부터 실시하며 대학과 같은 최고 교육기관은 당시의 사정으로 시기상조라고 하여 우선 성균관에 ‘신학문’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실업교육을 들었다.

이상과 같이 시데하라가 학정참여관이 되어 실행한 것은 〈한국교육개량안〉을 통해 식민교육을 위한 교육 방침을 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일본어 보급과 교과서 편찬이었다. 이는 이후 전개될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포석이 되었고 조선인에게 동화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였다. 시데하라는 조선은 ‘문의 나라’이므로 그 국민에게 적당한 교육을 통해 동화시킨다면 비교적 다른 국민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sup>18)</sup>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학정 사무를 서기관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가 장악하게 되자 시데하라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6월에 갑자기 경질되었다. 이후 미쓰지 추조(三土忠造)가 후임 참여관이 되어 시데하라가 만든 〈한국교육개량안〉은 수정을 거친 후 확정되었다.<sup>19)</sup> 시데하라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1910년 9월 7일에 개최된 제국교육회 조선교육조사부 위원회에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 개발 방침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다. 조선교육의 기본틀을 제시했던 그의 〈한국교육개량안〉은 나중에 식민교육의 기초가 된 1911년의 제1차 조선교육령의 기본방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2) 동화주의 교육론

시데하라는 병합 후 시행할 조선인 교육의 요점에 대하여 “금후 神代 이래의 평화관계의 친밀한 역사를 주지시켜 감정적 부분에서 융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조선인 교육은 현상의 비평화적이고 감정적인 알력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데하라가 병합이후 조선과 다른 나라의 식민지 교육을 비교하기 위해 구미의 식민지 시찰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문맥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식민지 교육시찰과 연구 성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선인 교육이 나갈 방향을 정리했다.

18) 幣原坦, 『朝鮮教育論』 제1장 總說 2. 內鮮兩地の過去の國風に現はれたる特徴, 1919, 28-29면.

19) 최혜주,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2장 한국병합 전후 시데하라 타이라의 행적과 교육론(어문학사, 2018), 40-92면.



첫째, 조선인 교육은 형식면에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비슷하여 모국인 교육과 토착인 교육을 나누어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내용면에서는 미국령 필리핀과 비슷하여 ‘모국어’ 보급과 실과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동인도의 경우 교육의 중점은 토착인 교육이 아니라 모국인 교육 측에 있었고,<sup>20)</sup> 필리핀의 토착인은 직업교육보다 문학교육을 좋아했지만 미국은 모국어(영어)교육과 실과(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sup>21)</sup>

이에 비해 조선인 교육은 병합이전 보호국 시대부터 교육을 중시해왔고, 모국인과 토착인을 나누어서 실시했지만 최후의 목적이 “조선인을 내지인(일본인)과 같게 만드는 데” 있었다. 이 점이 다른 식민지와 달리 차별이 아닌 동등한 교육이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는 완전히 조선의 고등학교를 본 것과 같으며 아국(일본)의 중학교 정도이다. 수업연한도 조선과 동일한 것은 역시 재미있지 않은가”<sup>22)</sup>라고 하여 일본의 식민교육은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식민교육과 비교해도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둘째, 영국은 인도에서 고등교육부터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아 영국의 다른 식민지에서는 답습하지 않았다. 미국과 프랑스도 아직 식민지에 대학을 설립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의 하노이에서 대학의 단서를 열려고 했지만 학생이 자칫 ‘독립의 공론(空論)’을 부르짖는 폐단이 생길까 중지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각국의 경험을 토대로 고등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육부터 착수하는 것이 안전하여 보통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 온당한 조치였다고 보았다.<sup>23)</sup>

셋째, 식민지 교육에서 고려가 필요한 것은 문학교육과 실과교육의 비중 문제인데, “생활 정도가 낮고 문명도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지방에서 자칫 형이상학을 가르치면 향산(恒産,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수여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 공중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 인도의 경우는 관리양성 교육에 치우쳐 다수의 국민은 직업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문학교육을 실시한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실과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데하라는 조선에서 병합

20) 幣原坦, 『殖民地教育』 제4장 蘭領東印度 제4절 雜感, 1912, 142면.

21) 같은 책, 제1장 米領比律賓 제4절 雜感, 1912, 29-34면.

22) 같은 책, 제1장 米領比律賓 제2절 學校の制度, 1912, 7면.

23) 幣原坦, 『朝鮮教育論』 제1장 總說 1. 植民地教育の方面より觀たる朝鮮(六盟館, 1919), 8-10면.

이후 신교육이 실시되면서 ‘정치와 교육을 혼동하여’ 학교에서 소요가 계속되었는데 “이 소요의 쓰라린 경험은 당국자에게 깊은 생각과 결심을 부여하여 공론을 피하고 실과주의를 취하는 동기를 만든 것이라 말해도 좋다.”<sup>24)</sup>고 보았다.

넷째, ‘모국어’를 보급하는 문제도 인도, 인도차이나,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에서 일본어 보급에 힘쓰게 되었다. 인도에서 인도고전 문학을 토착어로 가르칠까 영어로 가르칠까 논란이 있었으나 영어교육으로 결정되었다. 인도차이나도 하급 교육에서는 토착어를 쓰고 상급교육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스페인어가 쓰였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빠르게 영어가 보급되었다. 이에 대해 시데하라는 “조선은 이제 식민지로 취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내지(일본)와 동등한 위치에 선 것을 희망하고 또 내지인의 이상도 가능한 빨리 조선인을 우리와 같은 상태로 이끄는 데 있으므로 국어(일본어)의 보급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sup>25)</sup>

다섯째, 서양인의 식민지 경험에서는 무리하게 모국주의를 이식하려고 한 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예를 들면 알제리나 인도에서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혹은 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하여 종래의 사회조직이 어떠한 역사적 근거를 갖는가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것을 모국풍으로 변형하려고 시도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양인들이 애를 먹은 동화정책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는 “인종에서도, 사상에서도, 풍속에서도, 습관에서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동양인끼리의 일체성을 강조한다. 피식민자의 사상 및 습관을 연구하여 점차 문명으로 옮기는 작업이 용이하다고 생각했다.<sup>26)</sup> 즉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데 서양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한 조선인의 보통교육은 속성법을 취하고, 실용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사회 실무를 담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7)</sup>

이처럼 시데하라는 조선인 동화가 아직 철저하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서 다른 식민지 보다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을 가졌다.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인도와

24) 같은 책, 제1장 總說 4. 改革着手の際の騷擾(六盟館, 1919), 36-46면.

25) 같은 책, 제1장 總說 1. 植民地教育の方面より觀たる朝鮮(六盟館, 1919), 13-15면.

26) 같은 책, 제1장 總說 1. 植民地教育の方面より觀たる朝鮮(六盟館, 1919), 16-20면.

27) 幣原坦, 「朝鮮教育の要旨」, 『教育時論』 915, 〈時事彙報〉, 1910.9.15, 209면.

알제리에서 본국주의를 이식하려고 하여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식민지를 본국과 같게 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그는 식민지 주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서 자기 이상만으로 교육방침을 세우는 이상적인 동화주의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억지로 동화시키려 한 결과 도리어 분란을 일으키고 민심을 이반시켜 지배를 영속시키지 못하게 되지만,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면 도리어 식민지가 평화롭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동화주의의 한 방편으로 ‘적지주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적지주의’란 식민지의 사정을 참작하고 순응하여 지배의 대체적인 방향을 잡고 식민지 형편을 조절해서 문명화시키고 식민지 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sup>28)</sup> 그러나 그는 이상적인 동화주의로서 ‘적지주의’의 우수성을 말하면서도, ‘적지주의’는 식민지 주민의 형편 위주만이 아니고 본국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식민지 주민을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인 교육을 통해 일본인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다음으로 식민지 주민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일본의 문명을 식민지에 이식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본인 교육을 식민지 주민교육보다 더 중시한 것은 순전히 식민지 주민을 지배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은 후술하듯이 대만의 식민교육에서도 공통된 인식이었다. 일본은 조선이나 대만에서 식민지 주민 보다는 일본인 교육을 더 중시했다.

또한 시데하라는 1917년 6월 6일 사립 호수돈여숙에서 열린 조선기독교교육회에서 학무국장이 동화교육의 중요한 의의는 “국민이 충군애국하는 사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시설은 전부 동화의 실적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인이 충심으로 내지인과 동화할 각오가 없다면 그 불행은 헤아릴 수 없다. 어느 국민이라도 자기가 속한 국가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심입명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한 훈화내용을 소개하며 국민개조를 위한 동화교육을 강조했다.<sup>29)</sup> 시데하라는 조선인이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하나는 1916년과 17년의 개성과 수원의 공립보통학교 이동을 예로 들어 아동의 사상조사에서 ‘황은’과 ‘만세일계의 천황’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달리 변화가 보이며, 가정의 상황이나 조선인 교사에 대한 인

28) 幣原坦, 『滿洲觀』 제19장 同化主義と適地主義(實文館, 1916), 194-195면.

29) 幣原坦, 『朝鮮教育論』 제1장 總說 5. 新制によれる教育の方針(六盟館, 1919), 57면.

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조선인이 점차 일본인과 융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신도(神道)의 신자가 늘어난 점을 지적한다. 1912년 말에 약 5천 명이던 것이 1916년 말에는 8천 5백 명이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일본인 교사가 조선인 교육에 흥미와 열심을 갖고 종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들고 있다.

이렇게 조선인 교육이 이제는 식민지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동국인’으로서의 교육 시대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았지만, 일본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의 장벽을 철회해서 ‘내선공학’을 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로 인식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인민이 아직도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풍속·습관, 기타 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가 국민을 육성하는 능률상에서도 큰 장애가 있다고 보았다.<sup>30)</sup>

이처럼 시데하라는 식민경영의 중요한 문제로 동화주의를 지적하여 영국의 간접 지배 방식이나 프랑스의 직접지배 방식이 모두 실패한 점을 근거로 ‘적지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화교육을 통해 자기가 속한 국가에 충실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심입명을 바랄 수 없고 그 불행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적지주의 방식이 대만교육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 3. 대북제대(臺北帝大) 창설 활동과 식민교육론

#### 1) 대만대학 창설 논의

대만대학의 설립을 둘러싼 논의는 192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먼저 논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며, 시데하라가 대만대학 설립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살펴보자. 논점이 되었던 것은 설립 방법, 설립 목적, 학부 구성, 교수 내용 등에 대해서이다. 이하 각 사항에 대해 1920년 대만대학 기성동맹회에서 발행한 『臺灣大學設立論』(臺北市, 臺灣日日新報社)과 이에 대한 언론계의 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설립 방법에 대해 이나가키 초지로(稻垣長次郎, 대북의원 원장, 의학박사)는

30) 같은 책, 제1장 總說 9. 同化の徑路(六盟館, 1919), 92-93면.

세 가지를 제시하며 ① 현재의 각 전문학교를 종합해서 현 수준으로 대만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데 그치는 것, ② 현재의 전문학교 수준을 높여서 수학 학수를 연장하고 신대학령에 따라 대만대학을 설립하는 것, ③ 현존하는 전문학교 안에 대학령에 따라 대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①은 대만에 붙이이익을 가져다주며, ②는 현재의 의학전문학교 전부를 대학령에 따라 대학이라 하고 전문학교를 없애는 것이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자신은 ③이 대만대학을 현재의 전문학교와 병치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방법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둘째, 설립 목적에 대해 도고 미노루(東郷實, 대만총독부기사, 농학박사, 1890-1962)는 식민지 개발상 필요한 기관의 하나로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만에 대학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① 내지인(일본인) 자제 교육을 위해, ② 본도인(대만인) 자제 교육을 위해, ③ 대만 자체 개발을 위해, ④ 남지(南支) 남양 등 광대한 이웃나라에 일본문화를 이식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

나는 우리 대만의 사명은 서로는 아세아대륙에 남으로는 남양제도에 일본의 문화와 경제력을 伸殖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즉 일본의 남방발전은 경제적인 것과 동시에 문화적인 것을 요하고 이 일본문화의 힘을 가지고 인국에서 많은 이민족에 대해 신사상을 주고 문화적으로 일대 연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만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편익이 되는 것이다. - 일본문화의 선전에 가장 적당한 것은 대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만대학 설립 목적에 대해 노골적으로 중국 대륙에 일본 세력을 부식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보인다. 즉 다카기 도모에(高木友枝, 대만전력사장, 의학박사, 1858-1943)는 “대만은 결코 보잘것없는 대만이 아니며 항만의 가장자리에 서서 부르면 답할 만한 곳에 대륙이 있지 않는가. 많은 별처럼 나열한 부원의 섬이 아닌가. 이것을 개발하여 일본 세력을 이곳에 이식하려면 꼭 대만을 문화의 중심지로 해야 된다. 거기에는 고등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무라(木村匡, 대만상공은행 두취)와 하토리 세이이치(羽鳥精一, 미쓰이물산 대북지점장)도 남방에서 활동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대만대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구마모토 시게키치(隈本繁吉, 전 대만총독부 고등상업학교장)는 일본이 남지 및 남양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심인물이 될 만한 인격 있는 상업가, 신뢰할 만한 무역가를 양성할 대학이 필요하며, 이것은 일본인이 ‘무(武)에 치우치고 싸움을 좋아하는 국민’이라는 오해를 일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대만에 대학을 설립해서 내지인은 물론 지나인, 본도인, 남양인에게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이들 교육을 받는 자의 당면 이익만이 아니라 실로 일본국민의 입장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그럽고 포용력에 풍부한 일본의 진의와 일본의 문화 존중을 동양 전체에 알리고 나아가 구미인에게도 호감을 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대만대학의 건립은 지나인의 來學에 의해 저들에게 양호한 감정을 주고, 소위 日支친선의 사다리가 되어 偏武好戰의 민이라는 오해를 일소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즉 일본이 세계에서의 지위 면목상에도 자못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학의 학부 구성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구마모토(隈本繁吉)는 대학을 설립할 때 문학 미술 교육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세계 각국이 경제상의 문제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문학이나 미술도 등한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만대학에서 문과를 둔다면 지나인과 대만인에게 일본의 국사와 국문을 가르치자고 말한다. 일본인에게는 한문학도 가르쳐 교육 사항 전공을 허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학 설립에 앞서 선결 문제로 고등학교 설립과 일본인 학교에서 대만인 자체의 공학을 허가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기 도모에의 경우도 대만은 일본에서 연구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열대지에 응용할 수 있는 학부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문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만은 많은 지나(支那) 민족을 포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는 일종의 강고한 도덕관념을 주는 데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도고 미노루는 대만에서 최초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농과대학과 의과대학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진실한 문화적 발전을 하려면 문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양철학, 지나문학 및 남양 일대에서 각종 민족의 인종학적 언어학적 연구를 하여 일본문화의 선전에 필요한 근본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학을 설립한 뒤에는 여기에 부속하여 예과, 실과, 간이과를 병치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교수 내용에서 다니노 가쿠(谷野格, 대만고등법원장 법학박사, 1874-1923)

는 동화정책상 대만인에게 법률학, 정치학을 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 법률학과 정치학 교수를 주저하는 것은 동화정책상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대만인들이 정치상, 법률상의 지식이 발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좋은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이다.

대만에는 醫, 商, 工 등 대학도 필요하지만 법과대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지인, 본도인, 지나인은 같은 황색인종이라면 용이하게 동화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반대로 구미의 정책에 의해 지나인은 항상 배일을 외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가 왕성하게 남지, 남양에서 병원, 교회, 학교 등을 경영하는 데 대만은 다만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특히 대만에서 교육기관을 성대하게 하지 않는가, 왜 저들에게 동등하게 교육하지 않는가,

리엔키(李延禧, 대만총독부 평의원·臺北新高은행 전무취체역, 1883-1959)도 대만대학 설립에 필요한 학과는 법과, 문과, 의과, 상과이며, 법과가 필요한 것은 대만인, 지나인 가운데 내지 및 구미에 유학하는 자 모두 법과를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나 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문과 설립도 필요하며, 대만에서 지나 문학 연구는 재료에서나 지나 대륙과의 관계에서 편리하다. 의과, 공과, 상과가 대만을 중심으로 남지나 남양의 산업 발달을 가져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구보시마(久保島天麗, 대만일일신보 기자)는 대만을 야만스러운 풍속을 가진 거친 식민지로 관찰하면 잘못된 것이며, 지리적으로 부원이 풍부하여 끝이 없는 대륙과 가까이 있다. 남방에는 많은 섬들이 별처럼 나열되어 있는 곳으로 일본이 사명을 갖고 개척해야 할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원을 개척하여 일본 세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에 의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대만은 동양의 중심으로 각종 민족 불러모으는 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대만에 대학을 설립하여 여러 민족을 一校에 모아서 서로 친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일본의 위대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인과 지나인은 동일민족으로 있으면서 항상 철저히 융화하지 못하고 일화 배척, 보이콧 등의 꺼려야 할 현상이 일어났다. 평소부터 지나 민족이 일본의 진의를 오해한 것은 일본도 저들을 위해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학술적으로나 민족 동화를 위해서도 대만대학 설립은 필요하며, 대학 교육이라면 공학제를 채택해야 대만인과 일본인 사이에 진정한 동화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하여 학술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동화정책상으로도 대만대학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대만총독부는 이러한 대만대학 설립을 찬성하는 기성동맹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데하라를 대학 창설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설립 책임을 맡기려고 했다. 그는 1924년에는 문부성의 명을 받고 다시 구미에 파견되어 문화를 조사했다. 먼저 구미문화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시찰한 뒤 그리스 문화의 후계국인 이탈리아를 조사하고 이어서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향했다. 바로 이때 일본 외무성에서 보낸 “대만에 국립대학을 창설할 예정이므로 귀국하라”는 지급 전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시데하라는 출발 전부터 국립대학 창설 정보를 어렵듯이 알고 있었으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1)</sup> 이를 통해 시데하라가 이미 대만대학 설립에 관한 제반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고, 식민지 교육 시찰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을 계획하고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다음해였는데, 바로 7월 23일에 대만으로 건너가 창설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만대학을 창설하기까지 그가 중점을 둔 점이 무엇이었는지 왜 대만대학을 창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그는 대만에는 이미 고등학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제 대학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타이베이(臺北)에는 현재 고등농림학교와 의학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에 넣고 농학부와 의학부로 병치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만이 원래 한학만을 학문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문학부를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비 제한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학부를 갖추 수는 없었다. 대학 창설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러한 학부 개설 문제였다.

1925년 10월 9일 총독 공실(公室)에서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1884-1980) 총무

31) 幣原坦, 『文化の建設』 제11화 臺灣に於ける國立大學の創造(吉川弘文館, 1952), 105-115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회 대학창립회의가 열렸다. 이자와 다키오(伊澤多喜男, 1869-1949) 총독은 학문의 기본이라고 생각한 “이학부와 문학부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토 총무장관은 대만의 현상에서 “이·문 양 학부만으로는 졸업생이 갈만한 길이 막혀 결국 대학 설립의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데하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이과에 농과를 더하고, 문과에 법과를 더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법과를 넣는 것은 세간에 난점도 있었지만 나는 자바에서 견문한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바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차츰 토착인을 관리로 등용할 필요가 일어나게 되어, 처음 토착인 관리양성학교를 세워 법률과 경제의 학문을 가르쳐 그 졸업생을 채용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필리핀의 학무국장 바로스박사가 자바 시찰시, 이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우리 미국의 경영에 이것이 빠져 있어 무방침으로 토착인을 채용하는 잘못을 깨달았던 일이 있다. 이것은 좋은 깨달음이다. 대만 청년이 희망하는 곳도 법과가 많고, 대만의 대학에 법과가 없으면 도리어 다른 지방에 흠어져서 악화되어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고나서 법과를 두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sup>32)</sup>

이러한 시데하라의 절충안에 대해 이자와 총독은 다음 10일과 11일에 걸쳐 “법과라고 해도 이른바 법률가를 만들지 말고 법문학과가 된 이상은 동양도덕학을 모든 학생에게 배우게 하여 종래의 한학의 줄거리를 당기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문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문정학부라고 학부 편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10월 16일 회의에서 총독은 대학 설립 경비로 대략 300만 엔, 경상비로 150만 엔을 넘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만일 의학부를 개설한다면 750만 엔의 신영비와 275만 엔의 경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부는 연기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시데하라는 이때 입학부를 보류하게 된 원인도 역시 재정상의 형편에서였고, 6강좌를 설치해도 15만 엔의 경상비가 필요하고, 연습림 비용이나 공통경비가 적어도 5만 엔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정학부에는 종래 다른 대학에 없는 남

32) 같은 책, 107-108면.

양사학과 토속인종학을 설치하고, 심리학도 민족심리학을 중심으로 언어학의 자료도 동양·남양의 양쪽에서 고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윤리학도 종래 서양윤리학을 강의하는 형태를 깨고 동양윤리학을 배합하고 지금까지 ‘지나’사학이나 문학이라 불려오던 것을 ‘동양’으로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만대학의 특색을 이농학 부에서도 찾아서 다른 대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열대·아열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적지주의적 특수성을 강조했다.<sup>33)</sup>

다른 하나는 시대하라는 대만대학 설립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1926년 12월에 발표한 「대만의 학술적 가치」라는 논문에서 왜 대만대학을 설립해야 하는지를 대만의 학술적 가치와 연관시켜 피력했다. 그는 대만을 ‘남양 발전의 기점, 나아가 신동아공영권의 기점’이라고 생각했다. 남양 연구의 중요성을 “일본국민의 과거 자량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일과 같이 가는 곳에서 배일(排日)로 골치 아픈 이상, 남양 연구는 장래에 국민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이 남양 지역에 진출하여 ‘일본정(日本町)’<sup>34)</sup>을 만들어 일본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국민이 발전하여 신동아공영권을 만들어갈 중요한 거점이 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대만대학 설립은 시대의 요구이며 남양 연구와 조사에 가장 적합한 곳이 대만이라고 보았다.

대만은 일본 영토 중 한걸음 남양에 내딛고 있는 유일한 발판이다. 또한 인문과학상, 자연과학상으로도 막대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은 열대에 내딛고 있는 위에 수직적으로 온대는 물론 한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므로 식물학, 동물학, 의학, 기상학, 기타 백반의 자연과학 연구에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좋은 대상을 제공하고 있다.<sup>35)</sup>

이렇게 대만이 민족학, 언어학, 문학, 사학 기타 모든 인문과학 연구에서 얻기 힘든 좋은 대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것을 수직적으로 보면 대만은 열대, 아열대로부터 고산을 오르면 온대, 한대에까

33) 幣原坦, 「미國의光」, 『臺北帝國大學記念講演集』 5(松浦屋印刷部, 1936.12.20.), 1-5면.

34) 幣原坦, 『文化의建設』 제14화 南洋と日本文化(吉川弘文館, 1952), 141-147면.

35) 幣原坦, 「臺灣의學術的價值」, 『臺灣時報』 12(臺灣時報發行所, 1926), 25-34면.

지 연속하는 느낌이므로 식물학, 동물학, 농학, 임학, 기상학, 기타 자연과학을 위해서는 세계에 드문 변화와 좋은 자료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의학 연구에서 유명한 함부르크의 열대병연구소에 비해서 대만은 이곳과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환경에 있으므로 ‘인류의 복지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라고 언급했다.<sup>36)</sup> 시데하라는 이러한 일본문화의 정수를 남방에 퍼뜨리고 여기에 종합적인 남방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문명인으로서의 긍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대만대학 설립론을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의 논조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척식통신사 발행인 안도 사칸(安藤盛, 1893-1938)은 첫째, 왜 대만대학 설치가 필요한지 대만총독부에서 확고한 의견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만대학 설치의 필수조건은 하나는 대만 호적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다른 하나는 모국연장주의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자라면 정책적인 것이고 후자라면 대만을 내지(일본)의 일부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징병령도 반포되지 않은 특별지대인 대만에서 과연 모국연장주의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둘째, 대만에 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단지 ‘인재의 수요와 공급 상태에서’라고 말해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대만 적민(籍民)은 입학이 불편하고 그것은 국어(일본어)에 대한 학력의 저하로 인한 것이며 만약 국어력에서 우수한 자라면 모국의 대학을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며 하물며 비직업적인 수학, 법문 강좌를 바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문학과는 모국인 측이나 대만인 측이 바라는 학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만대학에 불필요한 법문과의 설치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모국에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고 너무 시대의 요구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문(孫文)과 같은 혁명가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법문처럼 정치철학 동양철학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순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한층 나쁘다”고 보았다. 셋째, 대학설치 시기와 조직에서 법문과 이농학부의 2부제로는 대만인의 향학심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며, 대학제도의 실행자인 텐 겐 지로(田健治郎) 총독, 조직의 실행자인 이자와 다키오 총독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것인지, 이해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37)</sup>

다음 척식통신사 발행인 미야카와 지로(宮川次郎)<sup>38)</sup>는 대만대학 설치에 대해 일

36) 幣原坦, 『南方文化の建設へ』, 敍言(富山房, 1938), 1-4면.

37) 安藤盛, 『臺灣・南支・南洋 パンフレット』 13, 懊惱せる臺灣大學(拓殖通信社, 1926), 1-10면.

부 인사를 제외하고 많은 대만인은 그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대만대학 시기상조론으로 요약한다. ① 일반 도민이 낸 조세를 가지고 한정된 소수자를 교육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② 일반 도민의 교육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교육 방침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③ 더구나 설립 동기가 홍콩대학이나 필리핀대학이 있는 것에 대한 국제적 체면에서 온 것이다. ④ 전체 도민에게 필요가 없는 기관이다. ⑤ 그러나 지금 설립의 가부를 논해도 어쩔 수 없으므로 정책 분위가 아닌 대만인 자체에게 진정한 기회균등을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대만대학은 “일본적 대학이고 대만인에게 입학이 편하고 또 민족성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만적’ 대학을 요구하는 목소리, 법문과 설치가 잘못이라는 대만대학 설립에 대해 총독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비판 등이 있었다.<sup>39)</sup>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창설 준비는 진행되어 예산이 1927년 12월 16일에 각의를 통과하여 내각서기관장을 거쳐 추밀원으로 서류가 돌고 있었지만 보류 상태로 결정이 나지 않았다. 시데하라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추밀고문관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憲, 당시 자작, 1845-1941),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당시 백작, 1857-1929), 미쓰지 추조(三土忠造, 대장대신, 1871-1948) 등에게 통과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3차례 열린 각의에서도 대학안이 상정되지 않고 1928년에야 겨우 대학안이 통과되었다. 정우회 내각이 총선거로 안정되고 나서야 대학 명칭을 대만제대에서 대북제대로 수정한 뒤 각의를 통과한 것이다. 1928년 3월에 대북제국 대학이 개설되어 시데하라는 초대총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 2) 대만·남방문화 연구와 대만교육 인식

시데하라의 남방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미 도쿄제대를 졸업하고 류큐문화 연구를 위해 류큐지역을 답사했고, 그 결과를 1899년에 『南島沿革史論』으로 간행한 적이

38) 『臺灣糖業の批判』(糖業研究所, 1913), 『砂糖講話』(拓殖通信社, 1926), 『臺灣の農民運動』(拓殖通信社, 1927), 『臺灣の社會運動』(臺灣實業界社, 1929), 『臺灣の原始藝術』(臺灣實業界社, 1930), 『臺灣の政治運動』(臺灣實業界社, 1931), 『臺灣地方自治改正に反對す』(宮川次郎, 1931), 『臺灣案内』(臺灣實業界社, 1934), 『臺灣再建運動を提唱す』(宮川次郎, 1936), 『福建風土記』(臺灣實業界社, 1940), 『趣味の臺灣』(日本旅行協會 臺灣支部, 1941) 등의 저작이 있다.

39) 宮川次郎, 『臺灣・南支・南洋 パンフレット』 73, 苦難の臺灣大學(拓殖通信社, 1928), 8-11면.

있었다. 그는 1925년 7월 대만대학 창설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뒤부터 1938년까지 10여 년 동안 대만과 남방문화를 조사 연구했다. 그 결과물로 『台灣文化史說』(台灣文化三百年紀念會, 1930), 『南方文化の建設へ』(富山房, 1938), 『興亞の修養』(明世堂, 1941), 『大東亞の成育』(東洋經濟新報社, 1941), 『國史上南洋發展の一面』(1941), 『極東文化の交流』(關書院, 1949)를 간행했다. 시데하라에게 있어 대만은 남양문화 연구의 기점이며 ‘남방문화의 연충(淵叢, 文물이 모여드는 곳)’이고, 신동아공영권의 기점이 되는 중요한 곳이었다. 그가 이자와 대만총독의 요청으로 대만대학의 창설 책임을 맡기로 결심한 것도 일본제국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문화 건설’이라는 측면에서의 관심과 더불어 이러한 대만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sup>40)</sup>

첫째, 대만의 명칭 및 기원에 대해서 명나라 초에 대만을 ‘대원(大宛)’이라고 부른 것은 토착인의 명칭을 한자로 옮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도쿄외국어학교장 무라카미 나오지로(村上直次郎, 1868-1966)의 『日蘭 삼백년의 친교』(富山房, 1915)에서 네덜란드인이 대만을 점령한 뒤의 문서에 ‘다유완’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지금의 ‘안핑(安平)’으로 다유완을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데하라는 ‘다유완’은 땅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종족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네덜란드인이 도래한 1624년 이후 반세기가 지나 대만의 정씨(鄭成功과 그의 아들 鄭經)가 멸망하고 청국 정부가 1684년 그 도읍인 동녕부(東寧府)를 대만부로 바꾸고 나서부터 대만이 공식 이름이 되었다고 말한다.

둘째, 대만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이곳을 무엇이라 불렀는지에 대해서이다. 사료에 보이는 류큐라는 곳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도쿄제대 교수 리스의 『臺灣島史』(富山房, 吉國藤吉 번역, 1898)에서 류큐열도부터 대만까지를 총칭하여 류큐라고 했는데, 자신은 수나라의 기사에 류큐를 정벌했다는 것이 오키나와 쪽이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류큐는 오키나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대만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대만의 남부에 살고 있었던 오키나와인이라고 본다.<sup>41)</sup> 즉 당시의 대만에는 다양한 종족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다고 여긴 것이다.

셋째, 일본인은 언제부터 대만에 왔는지에 대해서이다. 16세기 경 아시카가(足利)

40) 幣原坦, 『臺灣の學術的價值』, 『臺灣時報』12(臺灣時報發行所, 1926), 25-34면.

41) 幣原坦, 『南方文化の建設へ』 제4장 琉球・臺灣混同論爭の批判(富山房, 1938), 45-46쪽.

시대에 왜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왜구가 중국의 동남해안에서 패하여 대만으로 물러났다. 이때 일본인이 대만에 발을 디딜 곳이 마련되었으며 당시 대만을 중국에서 ‘작은 류큐(小琉球)’, 일본에서는 ‘다카사고(高山国)’ 라고 불렀다고 한다.<sup>42)</sup> 이후에도 오사카와 다카사고를 왕래하는 배가 있었으며 중국에서 온 생사(生絲)나 대만에서 나온 사탕 및 수피류(獸皮類)를 일본에 수입하기도 했다. 이후 네덜란드인이 안평(安平)에 와서 37년을 지배하고 있다가 국성야(國姓爺)로 불린 정성공(鄭成功)이 이들을 축출하여 대만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데하라는 정성공에 대해서 리스박사는 나쁘게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은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없었다면 대만도 자바처럼 서양인이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데하라는 이러한 대만의 역사를 통해 서양인이 2백년간 노려온 대만을 결국 청일전쟁 후 완전히 일본의 소유로 만든 것은 “아시카가시대 이래의 국민적 희망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데하라는 일본이 청일전쟁 후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여 차지한 이래 토비(土匪)의 전멸, 시가 건설, 교통기관 개선, 전신전화 가설, 항만 수축, 위생시설 등을 갖추었다. 재정 독립, 생명 안전, 자선사업의 보급, 특히 교육 번창이 이루어져 이번에 대학을 창립할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지적하여, 일본 주도로 대만에 ‘문명적 복지’ 즉 ‘문화 건설’을 실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데하라는 1924년 10월 27일에 열린 대만교육회 초청 강연회에서 서구 식민국의 교육 경험을 토대로 대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연했다.<sup>43)</sup> 첫째,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에서는 모국인과 토착인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모국인이 우월한 지위를 지키고 있다. 토착인에게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본국보다 6배 이상이나 인구가 많은 식민지를 제어하기 위해 무리하게 통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은 매우 평화로운 곳이고 일본인과의 융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는 토착인을 무시해서 모국인과 매우 심한 차이를 두고 있다. 토착인에 대한 취급방법도 상당히 엄격하다. 이에 비하면 대만은 토착인과 모국인의 같

42) 일본에서의 대만호칭 변천에 대한 연구는 横田きよ子, 「日本における‘臺灣’の呼稱の變遷について」, 『海港都市研究』 4, 2009, 1-5면을 참조.

43) 幣原坦, 「植民地に於ける諸國民の經驗」, 『臺灣教育』 270, 1924.12.1, 3-12면.

등이 없는 행복한 곳이라고 한다. 셋째 프랑스인은 베트남인을 가혹하게 취급했으나 최근 ‘지력의 힘’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하노이에 세운 동양학원을 중심으로 식민지를 경영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 이처럼 대만도 일본인과 대만인이 융화해서 대만에서도 문화적 시설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영국은 인도에서 계약 자유주의를 채택하여 통치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믿음’을 가지고 인도인을 다스린다. 다섯째, 미국령 필리핀에서 미국은 토착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기능교육을 왕성하게 하여 토착인에게 직업을 마련해 줄 공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식민지의 교육 경험을 통해 대만에서 모국인(일본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모국인이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고 토착인보다 탁월한 품성, 지식, 건강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독서와 운동시설을 통해 토착인을 다스릴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토착인에게 명예, 생명, 재산, 신앙에서 안심을 주어야 한다. 영국인이 경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안전하게 통치하고 있는 것은 토착인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영국과 같은 일이 없이 일본인과 대만인이 명예, 생명, 재산, 신앙에서 안심을 얻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한다. 셋째, 토착인에 대한 ‘은혜와 위업’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국의 각 개인이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선각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시데하라는 여타 식민제국의 통치와 일본의 통치가 다른 점은 “서양인이 동양인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일본은 대만과 같은 동양 인종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4. 맺음말

시데하라는 1900년 한국에 부임한 이래 학정참여관으로 식민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1906년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는 문부성 관료와 도쿄제대 교수를 겸임하면서 식민교육자로 연구 활동을 했다.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식민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구미를 시찰하고 1928년에는 대북제국대학 총장으로 부임하여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갔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시데하라의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동화교육

론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시데하라는 조선과 대만의 교육을 서구 식민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찰하여 조선과 대만이 서구보다도 식민지 교육이 순조롭게 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 그것은 조선과 대만이 일본과 ‘같은 인종’이므로 인종, 사상, 풍속, 습관에서 차이가 없고 일본인이 식민지 주민들을 다루는 교육법도 무리하지 않아 동화교육의 효과가 있어 서구보다도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 교육에서는 조선과 대만 모두 일본인 위주의 교육을 하여 식민지 주민 교육보다 우선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학정참여관으로 있을 때 근대적 교육의 학제 개편을 실시하면서 조선에서는 대학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시했다. 대만에서는 대학 설립을 준비하여 총장이 된 후 대만인보다는 일본인 위주로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식민지대학을 운영해 나갔다. 여기서 시데하라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종주국의 지위를 얻은 일본인에게 지도자다운 자질을 요구하면서,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피식민자의 지위에만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 시데하라는 조선과 대만에서 문화 건설과 교육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실천자가 되어 활동했다. 조선에서는 일본어 보급과 교과서 편찬을 통해 일본문화를 침투시키고 있었고, 대만에서는 대만이 일본문화 선전에 필요한 남양 연구와 조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만이 인문·자연과학 연구에서 막대한 가치를 갖는 지역이라는 인식아래 일본문화의 정수를 남방에 건설한다는 사명에서 활동했다.

넷째, 시데하라의 적지주의라는 것은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 사정을 참작하여 식민통치에 활용하지는 것이었다. 조선과 대만의 식민통치에서 일제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는 대북제대의 설립을 경성제대의 설립과 비교한다면 시데하라의 적지주의적 교육정책의 모습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외국 시찰을 통해 형성된 시데하라의 식민지관이나 교육관 등이 식민지의 상황과 어떠한 갈등을 빚는지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데하라는 10년간 대만에서의 교육 활동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뒤에는 총력전 체제하에서의 일본문화 건설은 ‘대동아 건설’을 위한 것이며 ‘대동아공영권’ 확장으로 ‘동아 민족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활동



은 일본이 벌인 침략전쟁의 첩병이 되어 “성전(聖戰)을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사의 자취를 모르기 때문”<sup>44)</sup>이라고 정당화시키며 문화 건설을 위한 일본제국의 영역 확장에서 그 이념적 부분을 담당해 간 것이었다.

투고일 20.09.29

심사완료일 20.11.18

게재확정일 20.11.20

44) 幣原坦, 『大東亞の成育』 제5장 目標の確立とその完遂(동양경제신보사출판부, 1941), 80면.

## <시대하라 연보>

- 1870년 9월 오사카 출생
- 1893년 도쿄제대 문학부 국사과 졸업
- 1893년 8월 가고시마(鹿兒島)高等中學校 造士館(현 鹿兒島大學)의 교수
- 1894년 琉球방문
- 1896년 9월 造士館 폐교 후 도쿄에 아미나시현립(山梨縣立)중학에 파견
- 1897년 『内外實用地圖, 日本之部』(共益商社), 『内外實用地圖, 世界之部』(共益商社)
- 1898년 아미나시현립중학교장, 『女子教育』
- 1899년 『南島沿革史論』(富山房)
- 1900년 東京高等師範(東京教育大: 현 筑波大學) 교수
- 1900년 11월 6일자로 한국의 관립중학(현 경기고등학교, 10월 3일 개교) 외국인교사로 부임(9월 외부대신 박제순이 주한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 요청)
- 1902년 『教育漫筆』(金港堂)
- 1904년 도쿄제대 박사학위 수여
- 1905년 1월 16일자 하야시 곤스케가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에게 일본인고문 초빙 요청, 2월 학정참여관에 임명, 『日露間之韓國』(博文館)
- 1906년 학정참여관 사표 후 귀국, 문부성 시학관
- 1907년 『韓國政爭志』(三省堂)
- 1909년 『學校論』(同文館)
- 1910년 도쿄제대 교수 겸임, 조선사강좌 개설
- 1911년 각 식민지 방문
- 1912년 『殖民地教育』(同文館), 『世界小觀』(寶文館)
- 1913년 히로시마고등사범(현 廣島大學)교장, 『日韓關係よりの對州研究』(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지리역사학회)
- 1914년 12월 5일 식민지 교육 전람회
- 1917년 7월 문부성에서 조선 출장을 명령, 『小青年の犯罪防遏政策に就いて』(내무성 지방국)
- 1916년 『滿洲觀』(寶文館)
- 1919년 『朝鮮教育論』(六盟館)
- 1920년 문부성 도서국 초대국장
- 1924년 『朝鮮史話』(富山房)
- 1925년 대만대학 창설 임무
- 1926년 대만대학의 문정학부와 이농학부 개설, 『世界の變遷を見る』(富山房)
- 1928년 대북제국대학 총장
- 1936년 대북제대 의학부 창설
- 1938년 일본으로 귀국, 『南方文化の建設へ』(富山房)
- 1941년 『興亞の修養』(明世堂), 『大東亞の成育』(東洋經濟新報社), 『國史上南洋發展の一面』(남양경제연구소)
- 1942년 興南練成院 원장

1946년 추밀고문관으로 복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1947년 공직은퇴

1949년 『極東文化の交流』(關書院, 京都)

1952년 『文化の建設－幣原坦六十年回想記』(吉川弘文館)

## ■ 참고문헌

- 幣原坦:『殖民地教育』(1912),『滿洲觀』(1916),『朝鮮教育論』(1919),『朝鮮史話』(1924),『台灣文化史說』(1930),『南方文化の建設へ』(1938),『興亞の修養』(1941),『大東亞の成育』(1941),『國史上南洋發展の一面』(1941),『極東文化の交流』(1949),『文化の建設』(1952)
- 『教育時論』(1894, 1904, 1910),『教育界』(1902),『教育研究』(1905),『大韓自強會月報』(1906),『日本外務省記録』(1905),『臺北帝國大學記念講演集』(1936),『臺灣時報』(1926),『臺灣・南支・南洋パンフレット』(1926, 1928),『臺灣教育』(1924)
- 金泰勳,『20世紀初頭における日本の對韓教育政策:韓國民衆の教育救國運動との関わりを中心に』,日本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教育學專攻博士論文, 1993.
- 稻葉繼雄,『舊韓國における 教育の近代化とお雇い日本人』,『日中教育文化交流と摩擦』阿部洋編, 1983.
- 瀧井一博,『植民地帝国大学のエートス:台北帝国大学初代総長幣原坦の思想形成』(酒井哲哉・松田利彦編,『帝国日本と植民地大学』,ゆまに書房), 2014.
- 李笑利,『幣原坦の日本語教育政策と「日語読本」』,『久留米大学大学院比較文化研究論集』12, 2002.
- 李恒全,『台北帝国大学設立計劃案に關する一考察』,『神戸大学大學院人間発達環境學研究科研究紀要』1-1, 2007.
- 馬越徹,『廣島高等時代の幣原坦-『學校教育』にみる植民地教育觀を中心に』(『戰前日本の植民地教育政策に關する綜合的研究』,科研費報告書・綜合 A, 研究代表者阿部洋), 1994.
- \_\_\_\_\_,『台北時代の幣原坦-台北帝國大學の創設と展開-』(『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その形成と展開-』,科研費報告書・綜合A, 研究代表者 阿部洋), 1996.
- \_\_\_\_\_,『漢城時代の幣原坦-日本人お雇い教師の先驅け』,『國立教育研究所紀要』,國立教育研究所, 115, 1988.
- 小澤有作,『幣原坦論序説-植民地教育指導者の足跡と思想』,『海峽』1, 1974.
- 李星烈,『乙巳勒約 前後 日本人 學政參與官 幣原坦의 教育干涉』,『教育行政學研究』20-4, 2002.
- 佐藤由美,『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龍溪書舍, 2000.
- 陳 瑜,『台北帝国大学設立構想に關する研究』,『教育實踐學論集』8, 2007.3 .
- 横田きよ子,『日本における「臺灣」の呼稱の變遷について』,『海港都市研究』4, 2009.
- 최혜주,『幣原坦의 顧問活動과 韓國史研究』,『國史館論叢』79, 1998.
- \_\_\_\_\_,『幣原坦의 植民地 朝鮮經營에 대한 研究』,『歷史學報』160, 1998.
- \_\_\_\_\_,『오다 쇼고(小田省吾)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인식』,『동북아역사논총』27, 2010.
- \_\_\_\_\_,『韓國併合前後における幣原坦の行跡と教育論』,『朝鮮學報』247, 2018.(『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2018에 번역 수록)

##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hidehara in Colonial Joseon · Taiwan

Choi, Hea-joo\*

Observ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activities focusing on Shidehara's theory of assimilation education in colonial Korea and Taiwan show that first, Shidehara, who made relevant observations of Korean and Taiwanese education in relation to Western colonies, was confident that colonial education was being conducted more smoothly in Joseon and Taiwan than in the West. This was because he viewed the effects of assimilation education to be advantageous compared to that of the West as the people of Joseon and Taiwan are 'the same race' as the people of Japan, sharing the same ethnicity, thoughts, customs, and habits and as the educational methods of the Japanese in dealing with colonial residents were not forceful.

Second, both Joseon and Taiwan conducted Japan-oriented education in their actual educational practices and this was prioritized over colonial resident education. Because of this, when Shidehara worked as an undergraduate adviser in Joseon, he viewe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to be unnecessary as school system reform was being conducted in modern education and he placed importance on elementary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After preparations were made for a university establishment in Taiwan and he became president, a colonial university was operated to cultivate people of talent needed for colonization. This signified that Shidehara demanded that the Japanese who gained suzerain state positions in Joseon and Taiwan possess leadership qualities while having the people of Joseon and Taiwan staying in

---

\* Hanyang University

positions of the colonized.

Third, Shidehara acted as an executor in the name of culture construc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 Joseon and Taiwan. He spread Japanese culture in Joseon through Japanese language distribution and textbook compilations and in Taiwan, he viewed Taiwan to be fitting for the research and examination of the South Sea needed for Japanese culture propagation. Also, he carried out the mission of building the essence of Japanese culture in Southern regions under the awareness that they have immense value in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research.

Fourth, the localism of Shidehara states that the colonial situations of Joseon and Taiwa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utilized in colonial rule. Comparisons made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Taihoku Imperial Un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to observ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in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Japanese Empire with regard to the colonization of Joseon and Taiwan will more clearly display the localized educational policies of Shidehara.

Keywords : Shidehara Taira, Hakjungchamyeokwan(senior supervisor), assimilation education, Joseon, Taiwan, colonial education, culture construction, Taihoku Imperial University